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지난해 가을 다녀온 문화기자 연수에서 인상 깊었던 곳은 인구 6만 명의 경기도가 평균이었다. '제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농촌마을에서 자라섬세계제조페스티벌이 열린다. 마니아들이 '강주'하는 축제에는 지난해 18만 명이 다녀갔다. 이 축제의 성공 뒤에는 현재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도 책임지고 있는 인재진 감독이 있다.

당시 전북에서 온 한 기자는 인 감독이 이끄는 두 축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전북지역 가장 큰 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1년이 넘도록 정체성 문제 등으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기자는 자라섬 성공 사례를 경청한 후 기자에게도 광주비엔날레와 월드뮤직페스티벌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개막 공연부터 결정?

갑자기 지난 일이 생각난 건 최근 광주시가 세계아리랑축전(이하 아리랑 축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아리랑 축전은 지난해부터 거론됐다. 시작은 당시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중국이 '아리랑'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발표

'아리랑 축전'과 광주시

계획서를 작성했고 시는 시·국비 포함, 9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20일 '세계 아리랑축전 10월 개최'라는 첫번째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행사 를 공식화했다. 개최 의미와 함께 고은 시인이 추진위원장과 맡고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막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주제 공연이 '님을 위한 아리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온 보도자료에는 '아리랑의 보편성과 광주 정신의 상징성을 결합한 칸타타 형식의

이나 집행위원들 등 전문가들에 대한 예의 아니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자스민 광주'가 오버랩 됐다. 시장이 체결한 MOU에 따라 에딘버러행(行)에 급급한 나머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지 못한 사례 말이다. 또 이 과정에서 시장의 지나친 관심이 '독려'의 차원을 넘어 사업 주체들의 창의성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도 낳았다.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아리랑축전을 광주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번째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하다. '자스민 광주'처럼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게 아

니라 대규모 축제를 탄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 몇 사람의 의견에 좌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스민 광주' 기억해야

지난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출범 했을 때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초기 40억원에 육박하던 예산은 반토막이 났고, 10년을 걸친 각종 토론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남무했다. 급기야는 도의회가 10년간 307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나아진 게 없다며 폐지문을 들고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22억원이 투입된 2011년 행사는 박갈린·김형석 카드를 뽑아들었다. 안숙선·김명곤으로 상정되던 기존 소리축제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지역에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폐지론'은 정치적 발언이라 펼쳐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는 광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시는 아리랑 축전과 관련, 소통을 강조하며 28일에는 서울에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9일 시민집단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강 시장의 '의견'도 시민 한명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면 좋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첫단추를 잘 퀘어아, 시행착오를 줄이며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비보같은 일은 없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시설

민주, 공천 대혼란 근본대책 내놓아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동구에서의 선거인단 모집과 공천 심사가 중단된 바이어 선거인단 대리 등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주·전남 일부 지역구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면접 등 공천심사 일정도 지역별 불가피하다.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부 지역구 예비후보자 자격 박탈과 경선방식 변경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첫 오프에 탈락한 후보들이 국민경선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거나 무소속 출마자에게 비화되면 민주당 주도의 지역 선거 관도에 군落到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동원 경선'에 따른 민심 애곡을 막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과 공천 배제 등의 방침을 정했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광주·전남

지자체 '인구 늘리기' 공무원부터 솔선하라

광주·전남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늘리기'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대부분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 인구 유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정작 직원들은 자녀교육, 삶의 질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구 유입 정책을 입안, 실행에 옮기고 출향인을 상대로 권유해야 할 당사자들이 삶의 질을 따지며 타지 역을 선호하는 것이다. 주거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타지에 살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읊울하기 어렵고, 관과 거주자들을 유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정부 지원금이 많아지고, 새 부서 신설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주소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치구 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인구 유입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無等鼓

마침내 끝이 난다.

헨리 튜더는 화합을 위해 요크가의 딸 엘리자베스를 왕후로 맞아들였으며,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합쳐 왕가의 표시로 삼았다. 이후 붉은 장미와 흰 장미를 합하는 것은 '화합'을 의미하게 됐다.

최근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삼남매가 벌이는 유산분쟁이 장안의 화제다. 장남이자 형인 이병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씨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이제라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던 게 끝자다. 혼자 아들인 이재현 CJ회장이 '삼촌의 부하들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은 점입가경이다.

서민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백 억 수천억 원을 한 손에 주무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제들과 재산싸움을 벌이는 재벌들의 행태가 흥미롭다. 장미전쟁처럼 장자상속의 관행이 무너진데서 원인을 찾는다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1999년 랭커스터가의 헨리 4세가 사촌인 리처드 2세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요크가의 리처드는 자신의 왕위 계승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잉글랜드 귀족들이 두 파로 갈리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장미전쟁이다.

이후 두 가문은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전을 벌이게 되며, 1485년 랭커스터가에 속한 리처드 백작 헨리 튜더가 보즈워스 전투에서 요크가의 리처드 3세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전쟁은

1450년대 잉글랜드 왕권을 놓고 붉은

장미를 문장(紋章)으로 삼은 랭커스터가(家)와 흰 장미를 문장으로 하는 요크가(家) 사이에 벌어졌던 30년간의 장미전쟁은 장자상속(長子相續)의 원칙이 진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헬링턴이라는 측면에서 과악한다면, 랭커스터가와 요크가의 원조인 플랜테저넷 왕가의 마지막 왕 리처드 2세가 후사 없이 사망한 것이 전쟁

을 촉발하고, 그 전쟁 중 왕위 찬탈이 끊임없이 계속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1399년 랭커스터가의 헨리 4세가 사촌인 리처드 2세를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요크가의 리처드는 자신의 왕위 계승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키고, 이를 계기로 잉글랜드 귀족들이 두 파로 갈리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 바로 장미전쟁이다.

장미전쟁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으로,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다.

장미전쟁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다.

<p